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치사회 변동 인터넷과 촛불집회

김상배

1. 촛불집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세기 후반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치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특히 이 글이 주목한 사례는 인터넷이다. 최근 인터넷의 확산이 정치사회 변동에 미친 영향은 이른바 '촛불집회'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촛불집회는 2002년 11월 미국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들을 추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집회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이후 촛불집회는 새로운 참여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촛불집회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한 것은 2008년 5월 초부터 열린,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이르러서이다.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시

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청 앞으로 나선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협상에 나선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반대하여 시발되었지만, 촛불집회를 둘러싼 양상은 정보사회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국 정치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의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참여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전의 정치사회적 집회들과 다른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다. 첫째, 집회가 조직되고 진행된 과정을 보면, 2002년 미국 장갑차에 희생된 호순·미순 추모 촛불집회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 등에 비해 2008년의 촛불집회에서는 디지털 기기, 특히 인터넷이 훨씬 더 핵심적이고도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집회가 내세운 주장 차원에서 도 2008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는 1964년의 6.3시위, 즉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시위나 1987년의 6월 항쟁, 즉 대통령 직선제 투쟁보다 훨씬 더 다양한 관심사와 주장을 담고 있다. 끝으로, 집회에 참여한 '민(民)'의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도,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20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國民)이나 19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형성된 민중(民衆)을 넘어서는 좀 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촛불집회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산업화와 정보화를 겪으면서 이룩한 한국의 정치사회적 역량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작금의 논의를 보면 촛불집회의 성격을 놓고 다소간의 개념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날로그 시대의 잣대로 디지털 시대의 정치사회 현상을 보려는 혼란이 존재한다.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인터넷이 단순한 도구적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구성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거시적인 정치사회변동의

잣대로 촛불집회의 미시적 측면을 훑쓸어 이해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1960~70년대 산업화시대의 '대중(大衆)'이나 1980년대 민주화 시대의 '민중'의 잣대만으로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2008년 시청 앞 광장에 나선 '민(民)'은 더 이상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거시적 대의명분을 추종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진보 대 보수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의 렌즈로 촛불집회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피상적 시도가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촛불집회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한다. 첫째, 디지털 현상으로서의 촛불집회이다. 2008년 촛불집회의 조직과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것은 웹 2.0으로 대변되는 유무선 인터넷이며, 이러한 인터넷은 아날로그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민(民)을 창출하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 현상으로서의 촛불집회이다. 2008년 촛불집회의 민(民)은 무중심(無中心)과 무외연(無外延)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작동방식도 탈집중(脫集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지식권력의 이동현상으로서의 촛불집회이다. 2008년 촛불집회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유지되어온 엘리트 주도의 정책지식 생산방식에 대한 민(民)의 도전을 의미하며, 이는 지식권력을 둘러싼 한국사회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이 결론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촛불집회에 비롯된 변화의 동력을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디지털 현상으로서의 촛불집회

촛불집회는 디지털 현상,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단순히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기기가 사용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터넷 현상이라는 말이 지니는 다층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단순히 하드웨어 또는 미디어로 보는 도구적 시각을 넘어서 생각과 행동의 변화까지도 야기하는 구성적 변수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촛불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특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웹 2.0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개방과 참여와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웹 2.0시대의 인터넷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도 이를 닮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강원택, 2008). 이러한 과정에서 웹 2.0시대의 인터넷은 분산되어 있던 개체들을 엮어주는 네트워킹의 매개체이다. 실제로 2000년대에 부상한 촛불집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터넷의 확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토론방과 와이브로(WiBro)로 대변되는 유무선 인터넷의 확산은 일방적 정보 제공의 의미를 넘어서는 양방향 정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러한 웹 2.0 현상이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인터넷 토론방으로서 인기를 끈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이다. 아고라(agora)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한 야외 집회장이다. 물리적 장소 외에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라는 아고라가 실제 거리와 인터넷 공간에서 재현된 것이 촛불집회의 특징이다. 네티즌의 토론장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의 방문자는 4~5월 한 달 사이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5월 마지막 주 페이지뷰는 3억 건을 넘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촛불

집회 소식이 여기를 통해 전파되면서 방문자는 더 늘어났다.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게시글이 잇달아 불으며 국민적 토론의 장으로 부상했다. 기성 언론의 뉴스를 전달만 하는 일방향성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기능을 갖춘 덕분이다. 아고라 사이트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관련 미디어는 페이지뷰 부문에서 포털 뉴스의 최강자인 NHN의 네이버를 추월하기도 했다. 인터넷 미디어의 판도 변화까지 가져온 것이다.

촛불집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선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길거리 저널리즘(street journalism)’의 활성화이다. 휴대폰, 와이브로 등의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UCC 동영상을 통한 촛불집회의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프리카(afreecar)’를 통해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촛불집회의 양상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거리집회 문화의 변화를 엿보게 하였다. 예전의 단골 시위용품인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사라지고, 대신에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장을 기록할 디지털 카메라 등이 동원되었다. 촛불집회 속의 이른바 영리한 군중(smart mob)은 노트북을 휴대하고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바로 인터넷에 생중계한다(Rheingold, 2003). 이렇다 보니 물리적으로 시위자 지선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촛불집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새로운 차원의 대정부 투쟁을 벌인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운동의 전술을 보는 듯하다(Castells, 2004a). 그야말로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대치하던 시청 앞 광장에서 ‘소프트파워의 정치(soft power politics)’를 보게 되었다(Nye, 2004; 평화포럼 21편, 2005).

물론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영리한 군중의 길거리 저널리즘만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기성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촛불집회의 촉발 단계에서 MBC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보도는 큰 파장을 낳았

다.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PD수첩>의 보도는 객관적 보도의 의미를 넘어서 국민적 납득 과정을 생략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항담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겨례신문》과 《경향신문》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진보언론도 인터넷 미디어의 담론에 가세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기성 보수언론과의 경쟁도 벌어졌다. 이러한 언론의 편가르기 경쟁에서 발생한 흥미로운 사건은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서 정부로부터 광고수주에서 배제된 진보언론에 대해 네티즌들이 모금운동을 벌여 정부에 대한 반론광고를 실은 사례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 토론판을 배경으로 하는 양방향 소통의 힘이 발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촛불집회는 단순히 인터넷 미디어의 힘만이 아닌 전통적인 미디어와의 복합 모델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인터넷 미디어라는 다윗과 전통 언론이라는 골리앗이 협업을 한 셈이 되었다(레이놀즈, 2006).

요컨대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관찰된 인터넷의 정치사회적 영향은 단순한 도구적 차원을 넘어서 구성적 차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새로운 집회공간을 창출하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인터넷의 특징상 새로운 공간은 ‘공적(公的) 공간’인 동시에 ‘사적(私的) 공간’의 성격을 가진다. 1980년대식의 ‘광장의 경험’에 더해서 인터넷 PC방 형태의 ‘밀실의 경험’이 그야말로 ‘공적 공간의 사적 공간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공사(公私)의 복합공간’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유무선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온라인에서 한국의 인터넷이 활용되는 독특한 패턴은 이러한 복합공간의 등장에 한몫을 담당했다.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완전히 개방된 사회 네트워크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종의 준(準) 폐쇄형 사회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간을 배경으로 시청 앞에 진출한 촛불집회도 독특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닮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시청 앞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현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3. 네트워크 현상으로서의 촛불집회

촛불집회를 누가 주도하는가? 사실 촛불집회의 성격을 떠올리면 이렇게 주체가 누구냐고 묻는 것 자체가 무색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을 무색케 하는 독특한 특징을 촛불집회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네트워크 현상이다. 그것도 단순 네트워크(simple network)가 아닌 복합 네트워크(complex network) 현상이다.¹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구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확산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의 부상을 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 어느 곳이나 미칠 수 있는 유선과 무선 인터넷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상호 교감과 행동의 공조가 가능해졌다.²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합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위계적 아키텍처를 갖는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organization)’과 비교할 때, 이들 복합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는 ‘레고 블록(Lego bloc)’처럼 그 형태와 규모의 조절이 용이하다. 각 구성요소들의 밀접한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의 작동방식과는 달리,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 네트워크는 ‘아메바’와도 같이 유연하게 움직인다. 위계적

1 복합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rquilla and Ronfeldt, eds. (2001)와 김상배(2008)를 참조.

2 정보혁명의 맥락에서 본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로는 Castells(2000)와 Benkler(2006)을 참조.

조직에서는 어느 한 구성요소의 제거가 조직체계 전체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복합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노드와 링크가 잘려 나가더라도 네트워크 전체가 붕괴되는 일은 없다. ‘도마뱀의 꼬리’처럼 손상된 노드와 링크를 복구하면 그만이다(Castells, 2004b).

이렇게 ‘아메바’와 같은 유연성(flexibility), ‘레고 블록’과 같은 확축성(擴縮性, scalability), 그리고 ‘도마뱀의 꼬리’와 같은 생존성(survivability) 등으로 요약되는 복합 네트워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 하트(Michael Hardt)와 네그리(Antonio Negri)에 의하면,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는 지구화 시대의 이른바 ‘제국(empire)’과 이에 대항하는 ‘다중(多衆, multitude)’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한다. 하트와 네그리가 그리는 21세기 세계질서는 ‘탈(脫)영토적’이고 ‘무(無)중심적’이며 ‘무외연(無外延)적’ 형태를 띠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등장을 의미한다(Hardt and Negri, 2000; 2004). 따라서 이러한 제국적 세계질서에 대항하는 다중의 세력도 영토적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중심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경계를 갖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국과 다중 간에는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로 벌어지는 생권력(biopower)의 정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볼 때, 네트워크 현상으로서의 촛불집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인터넷 공간의 토론꾼들이 시청 앞 촛불집회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참여 동기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복합 네트워크의 특성을 내보인다. 먼저 촛불집회는 기성제도권, 특히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저변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시청 앞으로 나오는 구성 방식은 거창한 정치토론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MLB(major league baseball) 사이트와 같은 동호회 형식의 인터넷 토론판에서 만나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시청 앞에 나오게 되었다. 옛날에

는 오프라인의 학교동창들과 함께 나왔다면, 이번에는 ‘인터넷 카페의 친구’들이 모여서 나왔다. 인터넷 상에서의 팬클럽 현상도 한몫을 담당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은 예전처럼 ‘옳고 글러서 나서게 되는 동기’뿐만 아니라 ‘좋고 싫어서 나서게 되는 동기’가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서게 된 데에는 기성 제도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정치의 현실도 다분히 작용했다. 촛불집회 현상은 자신들의 불만과 의견을 여과할 수 있는 정치과정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은 제도권을 거치지 않고 네티즌들을 결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촛불집회의 구성 방식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아메바와도 같은 무외연성과 레고 블록과도 같은 확축성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정체성 변화도 감지된다. 2008년 촛불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10대 여학생들의 참여가 앞섰다는 점이다. 10대 ‘촛불소녀’들의 참여 동기를 보면, 입시지옥으로 대변되는 거시적 문제에 대한 피해의식이 배경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학교급식으로 자신들에게 배급될 가능성이 높은 ‘미친 소’에 대한 분노가 촉발요인이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각과 행동을 결집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란 학교와 학원을 오고가면서 부모와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이렇게 10대의 참여로 시발된 촛불집회에 여전히 청년실업으로 고민 중인 20, 30대가 동조하고, ‘광장의 추억’을 쫓는 40대가 동참하는 확축적 과정이 이루어졌다. 참여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상이한 만큼 이들의 참여 동기나 정체성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마치 촛불집회 자체가 커다란 온라인 포털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다층적인 주제로 댓글을 다는(scordable) 모양

을 연상케 하였다.

한편 촛불집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복합 네트워크의 또 다른 특징인 무중심성, 즉 리더가 없는 네트워크(leaderless network)의 가능성을 내보였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집회의 의제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누가 선동하려 해도 먹혀들지 않는 자율규제의 메커니즘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전의 집회처럼 일종의 지도부가 있어서 집회의 방향과 목표를 주도하는 '의도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의도성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의 개최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관장하는 대책회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집회의 의제와 시위대의 전술을 결정하는 중심적 지휘부였다고 할 수는 없었다. 수십만의 촛불 행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무수한 개별 그룹과 개인의 집합체였다. 그래도 큰 탈 없이 질서를 갖추고 움직였다. 간혹 시위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하려는 모습도 보이지만 시위대가 자발적으로 저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복합 네트워크의 무중심성이라는 특징은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보화시대의 '만민공동회' 또는 '전국노래자랑'을 보는 듯했다.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서서 말하는 형식이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설과 연기를 선보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붉은악마의 응원과 팬클럽의 열광도 있지만 과격세력의 선동도 발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08년 촛불집회는 시위와 놀이 그리고 정치와 문화가 복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이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대의(大義)에 동감해서 나왔다. 그렇지만 일단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는 일종의 재미정치(fun politics)가 벌어지는 광장 현상이었다. 촛불집회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광경이 창출되었다. 참석자들은 동반한 가족, 연인, 친구, 직장동료와 촛불 물결 속의 문화를 즐겼다. 김밥과 간식, 음료수를 휴대한 사람도 있고, 팽과리 등 풍물을 치고 장단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대학 축제의 다양성과 시청 앞의 시위가 연결된 느낌이었다. 1980년대의 대학 대동제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 모습이었다. 양자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1980년대의 대동제가 '진지한 부정성'을 전제로 했다면 2000년대의 촛불집회는 저항과 부정의 의사를 연기하는 '진지한 장난'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³

이렇게 '문화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문화화'로 대변되는 촛불집회의 복합적인 양상은 정보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반영하는 면이 없지 않다. 인터넷 문화는 취향과 구미에 따라서 달리 구성되는, 이른바 '소량생산과 소량소비'의 '맞춤형 문화'와도 같은 성격을 띤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터넷 문화의 저변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대변되는 '대중문화'의 확산이 깔려 있다. 인터넷 문화가 자체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생산된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여, 이를 원형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닌 문화 콘텐츠를 재생산하기도 한다(Jenkins, 2006).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생산된 문화적 소재들이 각 인터넷 커뮤니티의 취향에 맞추어 각색되고 패러디되는 현상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전통 미디어의 포디즘(Fordism)적 '대중문화'와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적 '개별문화'가 복합된 형태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합 네트워크의 양상을 보이는 촛불집회

3 이렇게 '진지한 장난'과도 같은 시위의 등장에 대해서는 데루즈(Gilles Deleuze)의 개념을 원용하여 지구화에 반대하는 1999년 시애틀 시위를 분석한 Chesters and Welsh(2006)를 참조.

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촛불집회를 부르는 다양한 개념이 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무차별성 이미지의 ‘대중(大衆, mass),’ 획일성과 동일성 이미지의 ‘민중(民衆, people),’ 비(非)지성 또는 몰(沒)지성 이미지의 ‘군중(群衆, crowds, mob),’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이미지의 ‘시민(市民, citizen),’ 다양성과 저항의 이미지를 지닌 ‘다중(多衆, multitude)’ 등이 있다(Rheingold, 2003; Surowiecki, 2004; Hardt and Negri, 2000; 2004; 비르노, 2004). 사실 이들 용어는 모두 상이한 개념적 내포와 외연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촛불집회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하게 된다. 인터넷이 정치사회 변동에 미친 영향이라는 맥락에서 촛불집회를 어떤 개념으로 잡아낼 것이냐의 문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디지털 다중(digital multitude)’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촛불집회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실 다중이라는 용어를 원용했지만, 디지털 다중으로서의 촛불집회가 조직되고 작동하는 과정에 ‘민중’ 또는 ‘대중’의 요소가 그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촛불집회에서 행동을 결집하는 방식은 대중이나 민중의 형태를 따르지만, 생각과 지식을 모아내는 방식은 다중의 형태를 닮았다. ‘운동대중’과 ‘지식다중’의 조합이라고나 할까? 여하튼 이러한 ‘디지털 다중’ 개념의 핵심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름(flow)의 존재’라는 데 있다. 여기서 흐름이란 고체와 액체 사이 젤(gel) 상태, 또는 액체와 기체 사이 콜(zol) 상태처럼 어느 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복합상태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복합 네트워크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디지털 다중의 정체성은 ‘개별화된 민(民),’ 즉 ‘개민(個民)⁴’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중 또는 개민(個民)의 복합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라는 디

지털 기기를 배경으로 하여 조직되고 작동한다.

그렇지만 2008년의 촛불집회는 온전히 21세기 디지털 다중이라는 시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트와 네그리가 말하는 다중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무영토성이다. 다시 말해 하트와 네그리가 말하는 다중은 영토적 경계로서의 국민/민족(nation) 단위로 형성되는 국민정체성(nationality)을 넘어서 조직되고 작동하는 존재이다. 일종의 ‘네트워크화된 노드정체성(networked nodal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이러한 탈영토성 또는 탈민족성의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지구적인 문제와 한국적인 문제가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세방적(世方的, global+local=glocal)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촛불집회의 대응방식은 국내적인 논리에만 근거하여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풀어나가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의 전개와 병행하여 나타난 미국(자유무역 문제), 중국(인권문제, 올림픽 성화봉송 문제), 일본(독도 문제, 역사교과서왜곡 문제) 등에 대한 담론을 보면, 상대적으로 영토적 공간에 간힌 네트워크의 발상만이 발견된다.

4. 지식권력 현상으로서의 촛불집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현상으로서의 촛불집회가 한국의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촛불집회가 한국 정치사회를 지탱해온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야기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예전만 해도 미국과의

4 ‘개민(個民)’의 개념은 하영선(2008)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무역협상과 같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외교정책의 문제는 정부 관료나 관변 엘리트의 몫이었지 일반 시민들이 알가불가할 성질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만큼 전문지식이라는 것이 둘러친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촛불집회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기존에는 지식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던 분야에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데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인터넷은 전문지식의 울타리를 낮추고 일반인들이 지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토양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에서 지식권력의 이동, 또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엿보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김상배, 2004).

무엇보다도 촛불집회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이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론을 제기하는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반론의 표적이 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이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일종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일 뿐이며, 그 배경에는 현재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깔려 있었다. 쇠고기 문제는 중층적 분노와 울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등급 한우를 사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수입 쇠고기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울분이 작동했다. “안 그래도 서러운데 설렁탕 한 그릇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느냐?”라는 분노였다. 정권 차원에서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후 이른바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 등으로 불리며 물의를 일으킨 정부 인사들에 대한 불만도 배경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을 인수받은 새로운 리더십의 지도력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었다. 비유컨대 “이전 무대에서 ‘아마추어 배우’의 서툰 연기에 식상했기 때문에 연기를 잘한다고 소문난 ‘프로 배우’를 스카우트했더니만 정작 무대 위에서 대사도 잘 못 외우더라!”는 실망감이라고나 할까? 사실 2008년 초기 정권 교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기

보다는 지난 정권에 대한 실망의 표현으로 반대표를 던진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서의 기층에 제도권 정치와 국가의 권위 일반에 대한 불신도 자리 잡았다.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니 있었던 권위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하다는 반응이었다.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이를 후퇴시키냐는 분노이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이 존재하는데 국민이 직접 시청 앞에 나서는 것은 대의정치에 대한 부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의 확산은 여과기능을 상실한 기성 정치권의 자리를 침투해 들어갔다. 인터넷의 확산은 이전보다 훨씬 손쉽게 불만을 집적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환경을 제시했다. 이리하여 정치권을 바이패스해서 네티즌과 대통령이 ‘컨테이너 박스’를 사이에 두고 직접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여기에까지 이르면 한국 정치사회에서 국가 권위의 실추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시위를 통제하는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시민사회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위를 무시하는 현상이 난무했다.

촛불집회의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구태의연한 대응행태는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촛불집회의 배후에 이를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탄론’과 같은 인식이 등장했고, 이에 입각하여 촛불집회와 배후세력을 차단하자는 ‘원천봉쇄론’과 같은 처방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우병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을 색출하기 위해서 경찰청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은 대규모의 ‘경찰청 자수사건’이라는 유례 없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정부와 시민들 간의 소통이 더욱 멀게만 느껴졌다.

다. 특히 광화문 주변 세 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층층이 쌓아 청와대로 가는 주요 도로를 봉쇄했던 경찰의 대응은 국민과의 소통을 막는 '베를린 장벽'으로 비유되었다. 시민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정부는 여전히 20세기형의 권위주의와 발전담론, 그리고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아날로그 담론에 기반을 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촛불집회의 디지털 다중은 새로운 담론으로 대응했다. 앞서 언급한 《경향신문》의 광고지원 운동이나 대규모 '경찰청 자수사건'은 네티즌들이 새로운 담론을 제기한 사례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디지털 다중의 정보교환과 담론생산 및 행동결집의 메커니즘을 지원한 인터넷의 역할이다. 특히 웹 2.0 기반의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갖춘 인터넷은 막강한 네트워킹의 위력을 발휘하였다. '공룡의 꼬리'와도 같이 미미했던 존재들이 인터넷으로 모여서 '거대한 공룡'에 맞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웹 2.0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informed) '롱테일(long tail)'들이 온라인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만들어낸 '정보생산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정보생산모델은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가능성까지도 엿보게 하였다(레비, 2002).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웹 1.0이 웹 2.0으로 버전 업그레이드 되듯이 지식권력도 1.0버전에서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권력의 업그레이드 과정은 지식 또는 '과학적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정의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광우병에 대한 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 '과학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인터넷 토론 방을 통해서 '주워들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MBC <PD수첩> 보도의 과학성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았으며, 이후 과장보도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당시 네티즌들에게 광우병 지식이 과학적이나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다. 오히려 촛불집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식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정치의 문제'였다. 당시 "한국의 네티즌들은 광우병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인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는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과 '다음'의 아고라나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 사이에는 '지식'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깊은 골이 있었다. 네티즌들에게 광우병 관련 지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해 '미친 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미친(美親)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대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개방적이냐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촛불집회 시민들을 향해 "니들은 과학적 지식을 잘 모른다!"고 외치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촛불집회의 과정에서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정치담론'이 부상하였다. 특히 과거와 같은 거시적 정치담론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생활정치의 담론이 중첩되었다.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부각된 정치란 행복정치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내 밥상에 오르는 인간안보의 문제였다. 거대한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예전에는 '소(小)시민주의'라고 치부되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개인의 행복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논하는 디지털 신세대의 촛불집회를 진보와 이성이라는 잣대로 규정하려는 시도로는 집회에 나선 촛불들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촛불집회는 발전주의와 권위주의 담론을 기치로 하여 1960년대 이후 형성된 국내 지식질서의 기본 구조가 새로운 변동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386세대와 포스트386세대 및 디지털 신세대를 한편으로 하고, 이른바 6.3세대와 경제개발 세대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결구도가 펼쳐졌다. 요컨대 인터넷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의사와 행동의 결집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권력이동 현상을 야기하였다.

5. 인터넷 시대 촛불집회의 과제

디지털 현상이자 네트워크 현상이며 지식권력의 이동현상으로서의 촛불집회가 지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디지털 다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다보니까 간혹 이를 '지식'으로 착각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정보'가 아무리 양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쓸모 있는 '지식'이 되지는 않는다. 질적인 의미에서 유용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다루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촛불집회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면,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터넷 토론장이 공공의 목적에 맞는 지식을 생산하는 공간이 되고 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인터넷으로 엮이고 촛불로 밝혀진 '개별의지'의 합인 '전체의지'가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골고루 밝힐 '일반의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08년의 촛불집회는 '네트워크화된 사적 공간(networked private sphere)'일 수는 있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 '디지털 중우주의'나 '익명의 집단극성'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지도 모른다.

결국 인터넷시대의 촛불집회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과제는 어떻게 하

면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다중의 잠재력을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공민(公民, citizen)'의 지식과 지혜로 승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전체의지'를 넘어서는 '일반의지'를 구현하는 방책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염두에 두는 국가의 역할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분야에서 당사자들의 중지(衆智)를 모아냄으로써 무중심의 네트워크에 공공성이라는 중심성(centrality)을 부여하는 '지식국가'의 역할이다.⁵ 이러한 지식국가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기존의 형태라기보다는 인터넷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웹 2.0 환경의 출현을 배경으로 지식권력도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듯이, 이러한 변환의 와중에 필요한 지식국가도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한두 개의 법과 제도를 추가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성의 지식엘리트와 디지털 다중, 그리고 지식국가로 연결되는 삼각구도의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의 재구축 문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원택,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책세상, 2008.
- 2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잔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38(3), 255~276쪽, 2004.
- 3 김상배,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미발표 원고, 2008.
- 4 김상배 편, 『인터넷권력의 해부』, 한울, 2008.
- 5 레비, 피에르, 『집단지성: 사이버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2.
- 6 레이놀즈, 글렌, 『다윗의 군대, 세상을 정복하다』, 베이스캠프미디어, 2006.
- 7 비르노, 빠올로, 『다중: 현대의 삶의 형태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갈무리, 2004.

5 지식국가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는 하영선·김상배 편(2006)을 참조.

- 8 평화포럼21 편,『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21세기평화재단 평화연구소, 2005.
- 9 하영선,「촛불을 끄려면…」,《조선일보》2008년 6월 12일자 칼럼.
- 10 하영선·김상배 편,『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 1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 2 Benkler, Yochai,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 3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2000.
- 4 Castells, Manuel,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2004a.
- 5 Castells, Manuel,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in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3~48쪽, 2004b.
- 6 Chesters, Graeme, and Ian Welsh, *Complexity and Social Movements; Multitudes at the Edge of Chao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 7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8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Press, 2004.
- 9 Jenkins, Henry, *Fans, Bloggers, and Gamers: Exploring Participatory Cultur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 10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11 Rheingold, Howard,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3.
- 12 Surowiecki, James, *The Wisdom of Crowds*, New York: Anchor Books, 2004.

김상배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일본 GLOCOM(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인터넷 권리의 해부』,『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원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사업』,『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등이 있다.